



## 지상 특강

# ‘그리스도인과 기후 변화: 반응의 범위 이해’

(Christians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the range of responses)

미국 캘빈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넬 커리 (Janel Curry) 박사가 지난 4월 16일 한동대를 방문하여 위의 주제로 특강을 했다.

커리 박사는 1977년 미네소타 세인트 폴에 있는 밴엘 칼리지 졸업(BA)한 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지리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아이오외주의 펠라에 있는 센트럴 칼리지에서 가르치다가 1996년 가을부터 캘빈대학 지리학부 교수로 일해오면서 캘빈대 연구 및 장학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치, 사회 및 경제사상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게리 및 헨리에타 바이커 석좌 (the Gary and Henrietta Byker Chair) 교수로서 미국 및 캐나다의 지리와 문화 지리학 입문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에 한동대에서 행한 특강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반적 으로 말해 기독교와 특정한 환경에 대한 신념 및 행동 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 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다고 한다. 지난 40년간 많은 학자가 종교와 환경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매우 복잡한 면들을 발견했다. 본 강의에서 커리 교수는 현재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에서 기독교 적 대응의 범위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려고 시도했 다. 자연에 대한 태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생 각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종말 론, 둘째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구성에서 통합의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입장들이다. 이를 하나씩 간략 히 살펴보겠다.

첫째로 커리 교수는 기독교의 종말론이 기후 변화에 대 한 태도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하면서 보수적인 견해는 1) 신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 2)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 3)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 미암은 인간과 피조계의 타락, 4)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 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인류의 회복 내지는 구속 그리고 5)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 취될 것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개념인 창조, 타락, 구 속,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좀 더 자유로운 신학 전통에서는 진화론적 또는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사 회는 “가능한”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커리 교수는 칼빈주의, 웨이커 그리고 세대 주의적 입장들을 각각 비교하면서 각각의 입장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미국의 문화적 가정, 특히 경제적인 자유-시장 종말론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 준다고 말한 다. 칼빈주의는 현재와 완성될 내세적 하나님 나라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 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에도 소망임을 지칭한 다. 그러므로 현재의 요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현명

하고 동정심을 가진 창지기로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장 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 다는 것이다.

웨이커 교도들은 후천변설을 신봉하는데 이들은 성경 의 예언들이 대부분 로마 시대 때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며 역사는 잠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낙관주의적 종말론 때문에 이들은 평 화 및 정의의 구현을 위한 사회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세대주의적 입장은 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종말론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폭력이 난무하고 자연재해는 증 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 환경의 변화에 관 해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둘째로 커리 교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 간의 통 합에 관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을 보존하시므 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살림을 위한 계획의 한 부분 임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기후 변화의 도전에 직 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인간의 책임에 관해 커 리 박사는 주로 개인주의적인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 대 해 기후 변화는 좀 더 공동체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도 합리적 사 고를 하는 개인을 중시해왔지만, 이제는 관계를 더 강 조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입장이 가진 기본적 가정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종교적 신앙과 지배적인 문화적 신념의 차이를 분별하며, 상호 정청하고 대화하면서 각 교회의 구조와 문화적 범위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책은 단지 종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문화적 세계관도 포함하므로 그리스도인들 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가 필요하며 함께 공동본부를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